

영국인들 물가급등에 끼니도 거른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 사상 최고 실질임금은 역대 최대 폭 하락 “6명 중 1명 끼니 건너뛰었다”

영국에서 물가 급등으로 인해 실질임금이 역대 최대폭 하락하고, 6명 중 1명은 지출을 줄이려고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통계청은 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 효과를 제거해 산출하는 실질임금이 2분기에 작년 동기 대비 3% 하락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2001년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이다.

이 기간 상여를 제외한 평균 임금이 4.7% 상승했지만 물가 상승률은 훨씬 높았던 탓이다. 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에 9.4%로 40년 만에

최고였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가 높게 오르면서 영국인들이 먹고 사는 데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온라인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와 타임스 온라인 공동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16%는 지난 6개월간 돈을 아끼려고 정기적으로 끼니를 건너뛰었다고 답했다.

지난 8~9일 영국 성인 1천717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0%는 외식을 줄였다고 답했고 39%는 슈퍼에서 평소 사던 품목을 집었다가 가격이 부담돼서 도로 내려놨다고 말했다.

청년층(18~24세)은 물가 상승에 따른 고통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끼니를 건너뛰는 비율이 28%로 더 높았고 물건을 사지 못하고 내려놓은 경험도 56%에 달했다.

시장조사업체 칸타르에 따르면 영국의 지난해 식품물가 상승률은 11.6%로 200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이는 평균 가구의 식료품 구매 비용이 연 533파운드(85만 원) 늘어난 셈이라고 칸타르는 말했다.

가계 살림에 가장 큰 타격은 에너지 요금 급등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지는 내년 1월이 되면 전기·가스 평균 요금이 월급의 6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은 평균 월 급여는 2천272파운드인데 에너지 요금 상한은 내년 1월에 월 355.5파운드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컨설팅사 딜로이트의 선임 이코노미스트 데보 프라팀 데는 텔레그래프지에 “저소득층 가구는 에너지 비용이 소득의 25%에 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립기념일 맞아 자루 경주 벌이는 인도네시아 어린이들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인 17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에서 어린이들이 자루에 몸을 넣어 달리는 자루 경주를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77년 전인 1945년 8월 17일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했다. <연합뉴스>



최악 가뭄에 바닥 드러낸 중국 양쯔강 16일 중국 충칭시 원양현 인근을 흐르는 양쯔강 수위가 떨어져 메타릭 강바닥이 부분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양쯔강의 수위는 가뭄으로 여름철 기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다. <연합뉴스>

중국도 '인구 절벽' 위기감...출산 장려 정부 종합대책 발표

보험·교육·주택·취업 지원 조치

중국도 '인구 절벽'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주택·보육·취업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교육부, 민정부,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서는 16일 각종 지원정책을 담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산아 제한을 위해 35년간 시행했던 '한 자녀 정책'을 접고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한 지 6년만인 지난해 세 자녀까지 인정하기로 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중국 정부의 교육책이다.

중국에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만 몇지 않은 시기에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의견'에 따르면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는 한편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등 지원 조치를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산모와 아이의 안전 확보는 물론 출산·분만 체계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0~6세 아이와 임산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가정 방문 영유아 보호 서비스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 출산휴가 정책 개선, 일·가정 양립, 사회보험 개선, 주택 구매 혜택 등을 포함해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등의 분야에서 20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2025년 이전에 인구 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3년 이내에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 것이라는 얘기다.

작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대기근 시기인 1961년(949만 명) 이후 최소였던 2020년(1200만 명)보다도 11.5% 떨어진 1천62만 명을 기록, 자연증가율(0.034%)이 1960년 이래 최저치였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홍콩, 마카오, 대만 인구와 본토 내 외국인 제외)는 14억1260만 명으로 세계 최대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내년에는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 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가임기 여성의 감소, 늦은 결혼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혼과 출산 연기 등이 출생 인구 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치솟는 주택가격과 교육비 등도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무부 “북한과 이란 핵확산위협 우려”

“양국 어떤 협력도 걱정거리”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의 핵확산 위협을 우려하며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경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력 가능성을 묻는 말에 “우리는 이에 관한 정보를 발표했으며, 일부는 공개적으로 보도돼 왔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 정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간 미 안보 당국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과 탄도미사일 분야의 협력에 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두 나라의 확산 위협을 보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에 대해 이미 핵무

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정권, 이란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을 발전시킨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따라서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국제 규범을 어겨며 여내와 전세계에서 악의적 행동에 관여한 국가 간 협력은 우리에게 걱정거리”라며 북한과 이란을 겨냥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러시아 당국자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재건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보내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평가를 묻는 말에 우크라이나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대답했다.

그는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는 우크라이나의 주권적 영토 내에 있다”면서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할 사람들을 결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에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언론인 또 피살...올들어 14번째

실종 일주일만에 시신 발견

머리 외상으로 인한 사망

멕시코에서 언론인 1명이 실종된 지 1주일 만에 시신으로 돌아왔다고 로이터·AP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서 멕시코에서 살해된 언론인은 올해 들어 14명으로 늘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독립 언론을 운영하던 후안 아르초 로페스가 지난 9일 멕시코 북서부 소노라주의 산 루이스 리오 콜로라도에서 실종됐다. 이날 같은 지역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검찰은 발견된 시신이 생전 로페스와 똑같은 문신이 있는 것을 보고 신원을 확인했다며 로페스의 시신에 폭행 흔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소노라주 공공안전부는 부검 결과 로페스는 폭행으로 인한 머리 외상으로 숨졌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로페스가 피살된 게 언론인으로서의 일과 관련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 언론인 피살을 추적하는 국제 인권단체 아티클19도 이번 사건을 들여다 보고 있다고 전했다.

멕시코에선 2000년 이후에만 150명 넘는 언론인들이 범죄나 비리 등을 파헤치다 목숨을 잃었다.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풀칼라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양 출장로 인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월과정)
일시: 2022. 9. 13 (화) 오후 7시
장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수강료: 풍수 + 사주 20만원 (매월)

공개강좌 (무료)
일시: 2022. 9. 6 (화) 오후 7시
장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대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2246-1508

함평군 공고 제2022-873호

임평 군관리계획(시장, 도로) 결정(변경)인) 열람공고
함평군 함평읍 가가리 982번지 일원의 임평 군관리계획(시장,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므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8. 18.

함 평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치
가.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치: 변경결정
나. 공개시행(시장) 변경결정 조치

구분	도면번호	변경 내용	변경 면적(㎡)	변경률	최초 결정면적(㎡)	비고	
변경	①	시장	전남 함평군 함평읍 가가리 982	9,251	2,527	11,778	84.11.2.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2022. 8. 18. ~ 9. 6. (공휴일 제외, 14일간)
-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 함평군청 1층 민선사무실
- 공개도시: 개제상행(함평군청 미래전실 배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미래전실(☎061-320-15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2년 8월 1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371,000,000원 및 공적금 336,000,000원으로 감소하고, 발행주식의 총수 74,200주 중 보통주 7,000주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당 113,417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2년 8월 18일

시스템에어컨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817(용전동)
대표이사 김성신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에 관한 공고

주식회사 에이씨씨(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씨티건설(이하 '을'이라 한다)은 2022년 08월 17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그 영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과 분할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갑'의 분할된 부분의 권리와 의무는 '을'이 승계하고, 상행 제530조의 9 제3항에 의거하여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 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이의가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갑' 주식회사 에이씨씨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임실로 8
대표이사 김 오 선
'을' 주식회사 씨티건설
전라북도 부안군 백산면 부령로 268-7
대표이사 송 세 영

분 실 공 고

· 조합원분양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무등산자이 115동 702호

· 계약자 : 임 유 순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2년 8월 18일

산행안내

8월20일(토)

▲광주호신회 8월20일(토) (지리산) 뱀사골계곡 및 아문마을 천년송) 오전 06시 30분 풍암동 15분 데이트 7주차장출발 07시 롯데백화점 07시15분 예술의관후문 * 다음카페 광주호신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

光州日報

· 지역내선 ·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광 266-1960
	· 북 광 525-3761	· 신 안 222-8171
	· 광 선 571-7658	· 오 치 266-7801
	· 동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0054
	· 동 부 225-8001	· 중 안 222-0054
	· 중 정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벽 은 651-1833
	· 북 성 673-6836	· 송 하 675-6805
	· 진 명 671-7276	
서 구	· 광 선 382-5788	· 삼 무 372-2352
	· 서광 369-1625	· 문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문 일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청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선 944-0444	

노공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원도군 원도읍 죽성리 농공단지 내

면적 : 공장 150평, 냉동고 200평 (냉동방,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설 : 최신기계설비반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